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6th SEOUL YOUTH CEATIVITY SUMMIT & FESTIVAL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2
Transition and Solidarity for Sustainable Life on Earth 2

다시 배움과

Learning and Hope anew

희망에

대하여

2014. 09. 26. Fri ~ 09. 28. Sun @하자센터

하자 haja
center

Seoul Youth Factory for Alternative Culture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2 :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2014. 9. 26~9. 28 @haja center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하자센터
후원	연세대학교, 영등포구,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 JP모간, 한국암웨이
협력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도서출판 민들레, 방물단,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야기꾼의 책공연
문의	070-4268-9910(홍보) 070-4268-9917(프로그램 협업)
정보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http://jagongong.net/summit2014/ 하자센터 www.haja.net
프로그램 신청	아카이브하자 http://archive.haja.net/summit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2
Transition and Solidarity for Sustainable Life on Earth 2

다시 배움과

Learning and Hope Anew

희망에

대하여

2014. 09. 26. Fri ~ 09. 28. Sun @하자센터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의 장에 초대합니다.

초대의 말

올 봄, “세상(世)을 초월(越)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9.11 테러, 기후변화,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위험의 세계화’의 진행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지구상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겠지요. 지금 우리 인류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사회(risk society)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터질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생명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창의성을 화두로 다음 세대의 삶과 교육을 이야기해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직화된 무책임의 체제에 던져진, 위험을 감수하고 불안한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배워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올해에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는 위험(risk)이란 단순한 위기(crisis)가 아닌, 근대화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기와 재해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며 위험사회란 순간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그간 하지 않던 창의적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해방적 파국’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간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탄력적 회복력으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타인과 손을 잡는 것이 점점 두려운 일이 되고 있고, 홀로 있으라는 시장의 유혹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공통의 감각을 키우며 대대적인 ‘탈바꿈’을 하려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창의서밋은 새로운 윤리와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학습을 해보려 합니다. 기조 강연은 경제학적 이후 동북아시아의 삶을 연구해온 호주국립대학교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 교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일본 재해 지역부흥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노동경제학자인 도쿄대 겐다 유지(Yuji Genda) 교수와 덴마크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은 국제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의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jerg) 교장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국가와 시장이 나/우리의 필요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스스로 삶의 필요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가고 살아내는 생존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된 직업이나 일을 찾기도 어렵고 가족 외에는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고립무업(약칭 SNEP: Solitary Non-employment Person)’ 시대를 연구해온 겐다 교수는 ‘느슨한 연대’(weak ties) 관계망을 통해 희망을 직조하는 방식에 대해 들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덴마크 국제시민대학 IPC의 라운비 에르 교장은 기존 교육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그룬트비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자로서 “배움에 적대적인 시대에 배움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창의서밋에서는 대안교육과 제도교육 모두 ‘포스트 후쿠시마’ ‘포스트 세월호’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갈 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도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앞가림을 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터져도 탄력적 회복력을 갖고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통을 위한 영어 글로비시(Globish) 워크숍, 태양패널을 제작하는 적정기술 워크숍, 희망을 담아내는 타일 모자이크 벽화 워크숍, 소박한 먹거리와 흥겨운 놀이가 있는 마을장터와 달마당, 그리고 나눔부엌 등 설레는 만남과 침이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현실을 용기 있게 대면하면서 고른 숨을 쉴 줄 아는 여러분을 전환과 연대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조한혜정(하자센터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프로그램 전체 구성

어울림 축제	재난사회의 교육	심포가 있는 교육
<p>개막식</p> <p>폐막식</p>	<p>원탁대담</p> <p>- 재난 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p>	<p>원탁포럼</p> <p>-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 교육 법제화의 방향</p>
<p>서밋 나눔부엌</p> <p>서밋 달시장</p> <p>서밋 하자투어</p>	<p>이 시대 교육포럼 2</p> <p>- 포스트후쿠시마시대의 학습 과 성장</p> <p>이 시대 교육포럼 3</p> <p>-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p>	<p>이 시대 교육포럼 1</p> <p>- 전환학년제(gap year), 심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p> <p>이 시대 교육포럼 4</p> <p>-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 교육공동체</p>
<p>사람책을 만나다</p>	<p>서밋 강연(겐다 유지)</p> <p>- 격차사회에 놀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p> <p>서밋 강연(테사 모리스-스즈키)</p> <p>- 공동체 다시 만들기 - '새로운 마을' 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p>	<p>비진학포럼</p> <p>- 비진학 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p>
<p>타일벽화 워크숍</p> <p>- 희망을 담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p> <p>적정기술 워크숍</p> <p>- 태양광 패널 만들기</p> <p>글로벌비시 워크숍</p> <p>- 교사를 위한 글로벌비시 연수</p> <p>서밋 달마당</p>	<p>사례공유포럼@놀이</p> <p>- 동네에서 '놀이', 새로운 상상 과 확장</p>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

	26일 (금)		27일 (토)		28일 (일)					
10:00	적정기술 워크숍 본관 앞 살림집	글로벌시 워크숍 신관 303	원탁포럼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신관 203	비진학 포럼 비진학 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본관 1층 쇼케이스	서밋 강연 공동체 다시 만들기 신관 203	사례 공유 포럼 @놀이 동네에서 놀기 본관 1층 마을서당				
10:30							이 시대 교육 포럼3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이 시대 교육 포럼4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신관 203		
11:00									서밋 하자투어 하자 전관	서밋 나눔부엌 신관 중정
11:30										
12:00	폐막식 본관 1층 쇼케이스									
12:30		개막식 신관4층 하하허허홀	서밋 달마당 하자 앞마당							
13:00				이 시대 교육 포럼2 포스트 후쿠시마 시대의 학습과 성장 신관 4층 하하허허홀						
13:30					서밋 강연 격차사회에 놀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신관 203					
14:00	타일 벽화 워크숍 신관4층 허브정원									
14:30		원탁대담 재난사회에서의 교육을 묻다 본관 1층 마을서당								
15:00			서밋 달시장 하자 앞마당							
15:30										
16:00										
16:30										
17:00	서밋 달시장 하자 앞마당	행사구분								
17:30			축제							
18:00				재난						
18:30					심포					
19:00										
19:30										
20:00	서밋 달시장 하자 앞마당	행사구분								
20:30			축제							
21:00				재난						
					심포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세부 프로그램 안내

1. 어울림 축제(축제)



개막식 ※ 동시통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4:00-15:30

장소 신관 4층 하하하허홀

초대 위험사회에서 배움과 삶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300명)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 활기찬 오픈 퍼포먼스에 이어 서밋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환영인사, 올해 서밋의 주제를 대변하는 세 명 키노트 스피커 강연이 이어진다

내용

1. 여는 퍼포먼스(이야기꾼의 책공연, 쿨레칸)
2. 축사 및 인사말 (서울특별시, 연세대학교, 하자센터)
3. 개막강연1.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 호주국립대 교수)
- 위기에서 창의로 : 재난의 시대에 ‘정치적인 것’을 다시 만들기
4. 개막강연2. 겐다 유지(玄田有史, 일본 도쿄대 교수)
- 앞으로의 사회에서 리스크, 희망 그리고 유대
5. 개막강연3.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jerg, 덴마크 IPC 교장)
- 삶을 위한 배움과 스스로 시작하는 전환
6. 서밋 프로그램 안내
7. 닫는 퍼포먼스(페스테자와 쿨레칸 합동공연)

폐막식

일시 2014년 9월 28일(일) 13:30-14:30

장소 본관 1층 쇼케이스

초대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3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싶은 참가자들(100명)

창의서밋 스태프와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의 일정을 회고하고 내년 서밋을 기약하며 유대관계를 다지는 네트워크 행사이다

내용

1. 폐막 영상(창의서밋 스케치영상)
2. 서밋회고(국내외 서밋 참여자들)
3. 폐막사 및 감사 인사
4. 폐막 공연 및 네트워크 파티



서밋 나눔부엌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2:00-13:30
장소	신관 1층 허브 카페 & 중정
초대	국내·외 초청자 및 개막식 참가자(200명)

내용

2013년 6월부터 시작해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열리는 '나눔부엌'은 나눔과 돌봄, 현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이다. '창의적 공공지대'인 하자허브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자리 잡은 나눔부엌이 서밋 개막을 기념해 특별히 오픈한다. 주요 국내·외 초청자, 개막식 참가자 모두 밥상에 둘러 앉아 음식과 인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서밋 달시장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7:00-21:00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초대	서밋 참가자 누구나

내용

2010년부터 4년째 하자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대안적 마을장터 '달시장'. 서밋 개막과 맞춰 9월의 장을 개최한다. 올해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마을살이를 구현하고 있는 달시장 곳곳에서 서밋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서밋 하자투어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2:30-14:00
장소	하자센터 곳곳의 생태, 도시농업,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 실험공간
초대	생태,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 등 지속가능성 이슈 및 이의 현실 적용에 관심 있는 이들(15명)

내용

하자센터 곳곳에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각종 실험 공간이 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에너지 자립하우스 '살림집', 본관 옥상에 자리잡은 '하자마을 옥상농원', 마당의 빗물 저장고 등을 안내와 함께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사람책을 만나다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00-15:00

장소 본관 2층 999클럽

초대 다른 이들의 삶과 일에 관심있는 청소년들(40명)

내용 이제는 많이 알려진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 프로그램으로 초대된 연사를 '사람책'으로, 그와 대화하고픈 이들을 '독자'로 상정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듯 일정한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대화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민, 핵 누출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하자마을의 어른이자 촌장인 물리학자 등 인상적인 '사람책'들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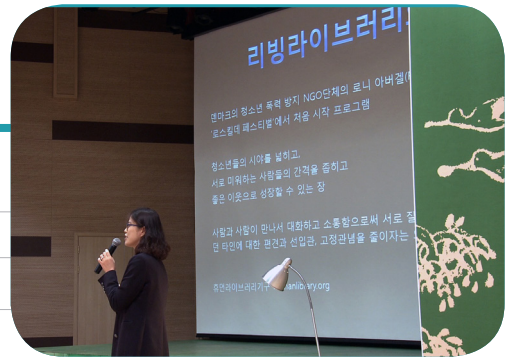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장소 본관 앞 '살림집' 앞마당

초대 적정기술에 관심 있는 이들(10명)

내용 연세대학교와 JP모간이 함께하는 청(소)년 현장 연계 교육사업 '자생(自生), 삶의 기반' 중 하자센터가 주관하는 '살림집' 프로젝트 팀이 진행하는 워크숍. '살림집'은 올해 하자센터 앞마당에 단열, 난방, 취사 등 전 설비에 적정기술을 적용해 만들고 있는 에너지 자립하우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공동체 회복과 자립 활동을 돕고 있는 Denkaacom이 자체 개발한 라미네이터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본다



글로벌시(Globish)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벌시 연수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장소 신관 303호

초대 글로벌시에 관심 있는 교사(20명)

내용 1천 5백 개의 기본 단어, 24개의 간단한 문장구조와 기본적인 발음구조만 익히면 되는 쉬운 영어 글로벌시. 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원작자 장 폴 네리에르의 지원 아래 글로벌시의 청소년 교육 버전을 만들기도 했다. '본토' 영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린 교사들을 위해 기획된 글로벌시 기반의 창의적 의사소통 워크숍이다

타일벽화 워크숍 : 희망을 담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5:30-17:00

장소 신관 4층 야외 허브정원

초대 서밋 참가자 누구나

내용 휴대폰 액정이나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던 손이 창작의 기쁨을 누리는 프로젝트. 주요 행사가 열리는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앞 야외 공간 벽면에 타일 조각으로 모자이크 벽화를 만들어본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밋 달마당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4:00-17:00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초대 서밋 참가자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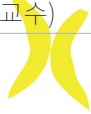
내용 대안 마을장터 '달시장'의 메인섹션은 함께 나누고, 아끼고, 바꿔쓰며 살아가는 마을살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달마당'이다. 물건은 물론 재능이나 기술까지 다른 주민들과 바꿀 수 있는 물물교환, 면생리대, 양초, 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생필품 워크숍, 미싱이나 손바느질로 수선, 리폼해 보는 재활용공방 등 삶의 지혜가 모여있는 마을살림의 장이 펼쳐진다.



2. 재난사회의 교육(재난)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6:00-18:00
장소	본관 1층 마을서당
초대	세월호 이후 교육의 전환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재난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나누는 공개 대담. 이번 서밋의 주요 키노트 스피커들이 참여한다
내용	- 사회 : 김찬호(하자센터 부센터장, 성공회대 초빙교수) - 패널 :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 국립대), 겐다 유지(일본 도쿄대 교수), 정병호(한양대 교수,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조한혜정(하자센터장, 연세대 명예교수)



이 시대 교육포럼 2 - 포스트후쿠시마시대의 학습과 성장 / 청소년과 함께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5:00-18:00
장소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초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등(100명)
내용	국내 대안학교 청소년, 일본 후쿠시마 이와키현 청소년, 홍콩창의성학교 청소년 등 3개국 청소년들이 각자의 배움과 성장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 시대 교육포럼 3 -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 교사와 함께

일시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장소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초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등(100명)
내용	일본 후쿠시마 그리고 한국의 밀양, 세월호 등 재난의 현장에서 배움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사의 경험을 학부모들과 함께 나누고 지혜를 모아본다



서밋 강연 - 공동체 다시 만들기;
'새로운 마을' 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 테사 모리스-스즈키와 함께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초대 풀뿌리 자치 및 지역운동, 지역사회 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내용

자신과 이웃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국가가 이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 역할을 뛰어넘는 사회적 행동과 발언을 통해 조용히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생존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을 이야기한다. 모치즈키, 후쿠시마 등 일본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파국의 시대, 국가와 시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삶의 필요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서밋 강연 - 격차사회에 늘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 겐다 유지와 함께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6:00-18:0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초대 후기 청소년과 청년의 삶과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내용

불안과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벽은 간단히 넘어설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지도 모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희망과 사회 전체의 희망을 발견하리라 말하는 겐다 유지 교수의 집중 강연이다



3. 심포가 있는 교육(심포)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3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초대	대안교육연대 회원 학교 및 단체 등 대안교육 법제화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내용	<p>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달라도 교육기본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의 교육체제를 넘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는 대안교육연대와 함께 공교육 안팎을 아우르는 배움의 권리를 덴마크 자유교육을 통해 배우는 자리를 마련한다</p> <p>- 발제 : 쇠렌 라운비에르(덴마크 IPC 교장), 클라우스 슈탈(덴마크 IPC 부교장)</p>

이 시대 교육포럼 1- 전환학년제(gap year), 심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00-16:00
장소	본관 1층 마을서당
초대	자유학기제, 대안교실 등 교육의 전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교사 등(50명)
내용	<p>경쟁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10대 중후반의 전환기에 학교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잠시 쉬면서 그간 자기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 갭이어(gap year) 성격의 배움터(전환학교 또는 틈새학교)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자리. 덴마크 IPC의 사례를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한국사회에서의 가능성을 찾아본다</p> <p>- 발제 : 현병호(대안교육연대 대표), 쇠렌 라운비에르(덴마크 IPC 교장)</p>

이 시대 교육포럼 4 -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초대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에 관심 있는 (대안, 혁신)학교 교사,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행정가 및 연구자 등(50명)
내용	<p>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학교 등 ‘마을이 학교다’는 모토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 교육정책 영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를 넘어선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로 불리는 미국의 공립형 대안학교 메트스쿨(Met School)이 그간 실천해온 다양한 ‘학교 밖 학습(leaving to learn)’ 사례를 들어본다</p> <p>- 발제 : 앤드류 프리슈먼(Big Picture Learning 프로그램 개발 담당 이사)</p>

비진학포럼 - 비진학 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00

장소 본관 1층 쇼케이스

초대 비진학 등 후기 청소년의 삶과 생애기획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내용

일반고 공동화 현상과 함께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선상에 있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생애사적 기획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산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저성장 고실업 시대를 맞이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의 어려움과 삶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연세대학교와 JP모간이 함께하는 청(소)년 현장 연계 교육사업 '자생(自生), 삶의 기반' 중 한 프로젝트인 '연금술사 일학교'의 현장 사례도 소개된다

- 발제 : 엄기호(교육공동체 '벗' 편집위원), 박진숙(주식회사 연금술사 대표)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이': 새로운 상상과 확장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장소 본관 1층 마을서당

초대 지역 및 세대를 기반으로 놀이를 고민하는 교육 및 놀이활동가 등(50명)

내용

위험사회라 불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왜 다시 놀이에 주목하는가? 놀이마저 사교육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현실에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의 힘이 살아있는 마을로 확장된 놀이터를 그려본다. 지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노는' 다양한 팀의 사례를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이다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알차게 즐기는 3일간의 동선

9월 26일(금)

글로벌시(Globish)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벌시 연수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 장소: 신관 303호
- 초대: 글로벌시에 관심 있는 교사(20명)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 장소: 본관 앞 '살림집' 앞마당
- 초대: 적정기술에 관심 있는 이들(10명)

오전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순차통역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30
-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 대안교육연대 회원 학교 및 단체 등 대안교육 법제화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비진학포럼 - 비진학 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00
- 장소: 본관 1층 쇼케이스
- 초대: 비진학 등 후기 청소년의 삶과 생애기획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서밋 하자투어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2:30-14:00
- 장소: 하자센터 곳곳의 생태, 도시농업,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 실험공간
- 초대: 생태,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 등 지속가능성 이슈 및 이의 현실 적용에 관심 있는 이들(15명)

개막식 ※동시통역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4:00-15:30
- 장소: 신관 4층 하하하하홀
- 초대: 위험사회에서 배움과 삶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300명)

오후

타일벽화 워크숍 - 희망을 담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5:30~17:00
- 장소: 신관 4층 야외 허브정원
- 초대: 서밋 참가자 누구나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순차통역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6:00-18:00
- 장소: 본관 1층 마을서당
- 초대: 세월호 이후 교육의 전환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서밋 달시장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7:00-21:00
-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 초대: 서밋 참가자 누구나

9월 27일(토)

서밋 강연 - 공동체 다시 만들기

- '새로운 마을' 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 테사 모리스-스즈키와 함께 ※순차통역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 장소 :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 : 풀뿌리 자치 및 지역운동, 지역사회 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

오전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이': 새로운 상상과 확장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초대 : 지역 및 세대를 기반으로 놀이를 고민하는 교육 및 놀이 활동가 등(50명)
-

사람책을 만나다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3:00-15:00
 - 장소 : 본관 999클럽
 - 초대 : 다른 이들의 삶과 일에 관심있는 이들(40명)
-

이 시대의 교육포럼 1

- 전환학년제(gap year), 숨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 ※순차통역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3:00-16: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초대 : 자유학기제, 대안교실 등 교육의 전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교사 등(50명)
-

서밋 달마당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4:00-17:00
 - 장소 :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 초대 : 서밋 참가자 누구나
-

오후

이 시대 교육포럼 2 - 포스트후쿠시마시대의 학습과 성장 / 청소년과 함께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5:00-18:0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 초대 :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등(100명)
-

서밋 강연 - 격차사회에 눌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 겐다 유지와 함께 ※순차통역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6:00-18:00
 - 장소 :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 : 후기 청소년과 청년의 삶과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

9월 28일(일)

이 시대 교육포럼 3 -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 교사와 함께

- 일시 :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 초대 :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등(100명)
-

오전

이 시대 교육포럼 4 -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 일시 :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 장소 :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 :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에 관심 있는 (대안, 혁신)학교 교사,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행정가 및 연구자 등(50명)
-

폐막식

오후

- 일시 : 2014년 9월 28일(일) 13:30-14:30
 - 장소 : 본관 1층 쇼케이스
 - 초대 : 2014 창의서밋 3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싶은 참가자들(100명)
-



하자센터 오시는 길



버스 이용시

신화병원 버스정류장

지선버스 5714 / 6614

간선버스 760 / 605 / 363 / 661

좌석버스 87-3 / 66

일반버스 70-2 / 70-3 /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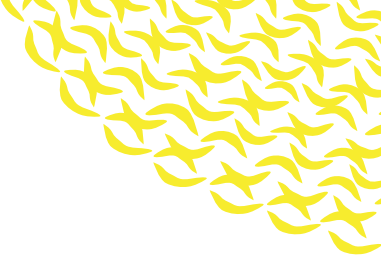
지하철 이용시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2, 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약도를 참고해 주세요)

* 개막일인 9월 26일에는 달시장 등 서밋 행사 야외 개최 관계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새주소)
- 문의 070-4268-9910(홍보) 070-4268-9917(프로그램 협업)
-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사이트 <http://jagongong.net/summit2014/>
- 하자넷 www.haja.net
- 개별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 <http://archive.haja.net/summit>



창의서밋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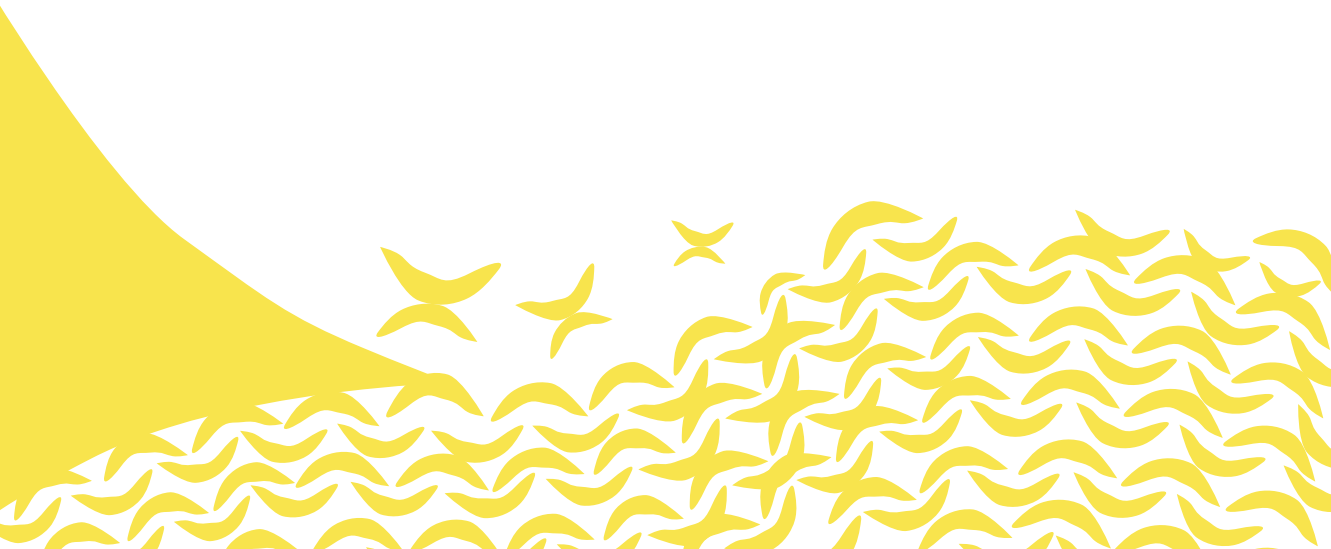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포럼, 워크숍, 강연, 투어 등은 하자센터의 예약 및 아카이브 사이트인 아카이브하자(<http://archive.haja.net/summit>)를 통해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사이트(<http://jagongong.net/summit2014/>), 하자넷 (www.haja.net)을 통해서도 세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서밋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하자넷 오른쪽 상단의 뉴스레터 구독신청 코너를 이용해 신청해 주세요.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체 콘셉트 및 공간 제약 등으로 인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하자를 통해 신청하신 후 스케줄 변동 등으로 불참하실 경우 각 프로그램의 기획자에게 전화, 메일 등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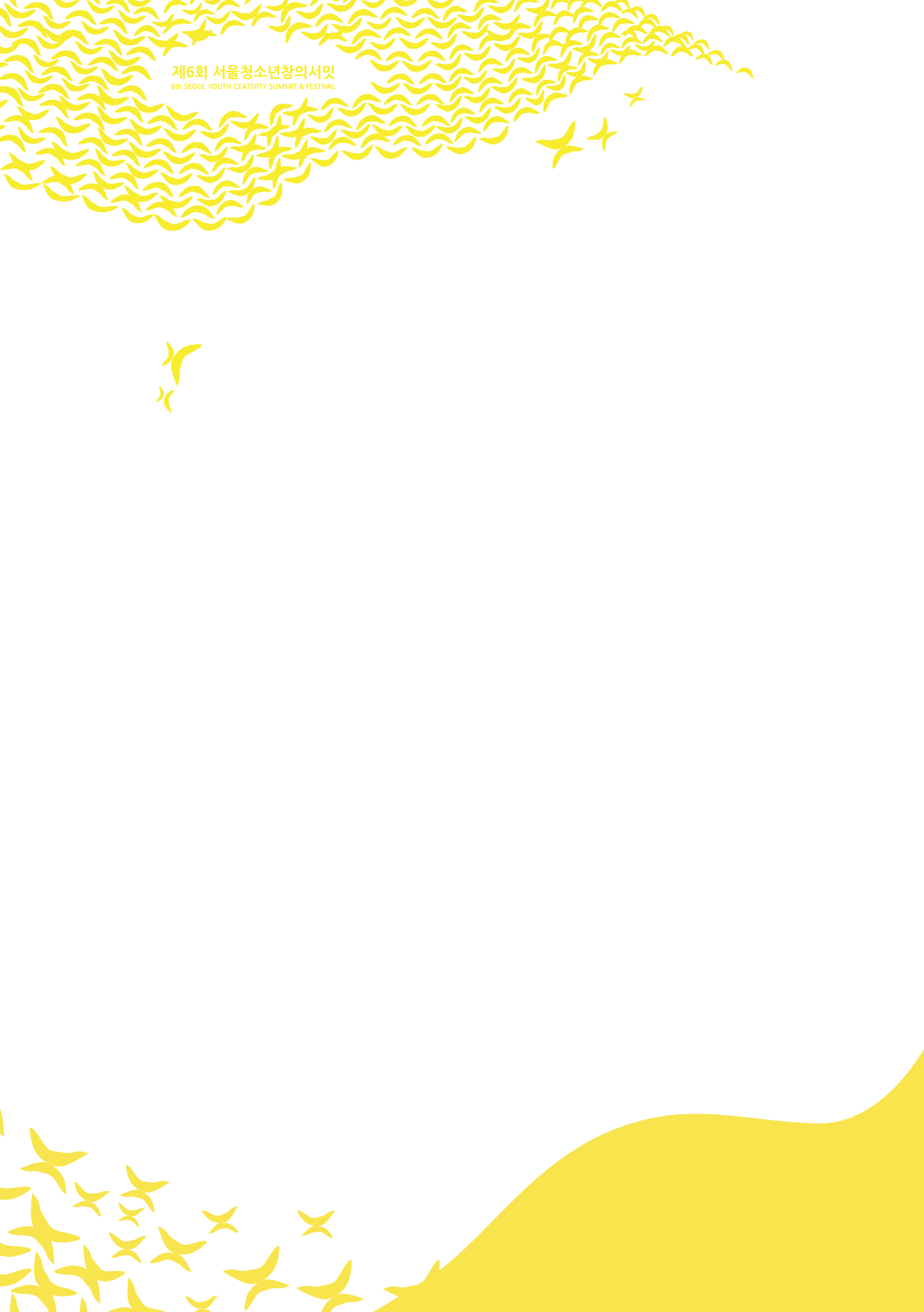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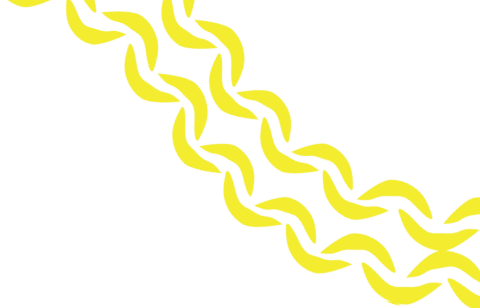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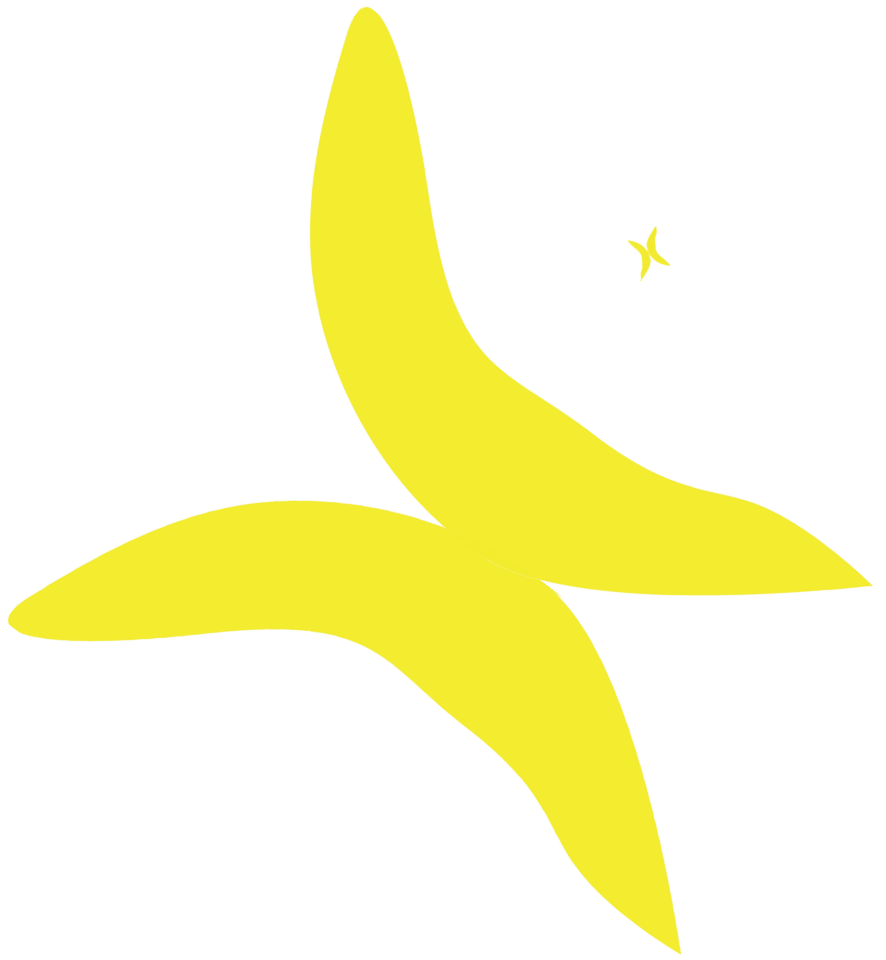
>>>아카이브하자
archive.haja.net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6th SEOUL YOUTH CEATIVITY SUMMIT & FESTIVAL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하자

후원 |  연세대학교  영등포구 J.P.Morgan  Amway

협력 |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교육연구원  민트레  다담단  서울시 학교밖정착소년지원센터  이아기린의 퀼트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6th SEOUL YOUTH CEATIVITY SUMMIT & FESTIVAL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취지문

주최와 배경

2008년 예비 서밋으로 시작한 서울청소년창의서밋(약칭 '창의서밋')은 서울시와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이 지원하고 하자센터가 주관하는 연례행사입니다. 1999년에 문을 연 하자센터(공식명: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강조한 '창의적 공공지대 (creative commons)'로 출발했습니다. 낙후된 제도권 교육에 반발하면서 스스로 학교를 탈출하는 청소년이 생겨나고 학교에 남아 있어도 몸만 있지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딴 짓을 하는 학급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은 다른 삶을 상상하고 좀 다른 일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한 관민협력의 프로젝트로 문화작업장과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하자센터는 문화작업장만이 아니라 카페와 나눔부엌, 시장과 허브가 있는 마을로 진화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늘어났습니다. '창의서밋'은 하자센터가 외부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배우고 놀고 즐기는 나눔의 자리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자기 주도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면서 마치 창의성이 훈련을 시키면 되는 어떤 능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학원가에서는 학생들을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창의적 인재'로 키워준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낼 거대 기구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적 상황을 보면서 하자 센터는 '창의성 뭘미?,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08년 예비 창의서밋을 기획했습니다. 그 때 기조강연자로 초대된 분은 글로비시(Globish)의 창시자 장 폴 네리에르(Jean-Paul Nerriere) 선생이었습니다. 이 분은 글로벌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소통의 위기를 보면서 한 특정 집단이 소유한 언어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글로비시라는 영어를 만들어낸 분입니다. 또한 홍콩창의성학교 아트디렉터 메이 핑(May Fung), 모스크바 국제영화학교 설립자 알라 스테파노바(Stepanova Alla) 선생과 함께 홍콩과 러시아의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여 창의성과 배움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2009년 제1회 창의서밋에서는 '창의성, 위기의 삶과 만나다'라는 화두로 창의성이란 결국 삶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OECD CERI(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 Innovation) 책임연구원 데이비드 이스탄스(David Istance), 홍콩대학 문화정책연구소 소장 데스몬드 호이(Desmond Hui), 홍콩창의성학교 교장 에이다 웡(Ada Wong), 모스크바 국제영화학교 교사 올가 페그라다얀(Olga Fagradian), 핀란드 옴니아직업학교 교장 유하-페카 사리넨(Juha-Pekka Saarinen), 네팔 사회적 기업 3 Sisters Adventure Trekking의 비자야 체트리(Bijaya Chhetri)와 러키 체트리(Lucky Chhetri), 일본 사회적 기업 Center for Active Community 대표 아쓰코 핫토리(Atsuko Hattori), 교토 랩 대표 오카베 도모히코(Okabe Tomohiko), 소다테아게

넷 대표 쿠도 케이(Kudo Kei), 아소봇 대표 이토 다케시(Ito Takeshi), ISL 소셜 이노베이션 센터 디렉터 이토 켄(Ito Ken) 선생 같은 분들이 강연을 하고 워크숍을 주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계발과 자기 관리를 주창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는 단기적 효능을 지닐지 몰라도 지속가능한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다양한 현장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0년 제2회 창의서밋은 '지속가능한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인 협력과 호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나홀간의 축제의 장을 펼쳤습니다. 덴마크 카오스필로츠 설립자 우페 엘백(Uffe Elbaek), 네덜란드 노매즈 교장 피터 스피ندر(Pieter Spinder), 캐나다의 대안학교 '경계없는 학교'를 설립한 크리스 강(Chris Kang), 일본의 생태평화운동가 마사키 다카시(Masaki Takashi), 일본의 카페슬로 설립자 요시오카 아츠시(Yoshioka Atsushi) 등 문명의 전환기에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삶터와 일터를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와 문명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1년 제3회 창의서밋에서는 주제를 '상상, 행동, 전환'으로 잡고 말보다는 창의적 움직임 그 자체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홍콩당대문화원 대표 에이다 웡(Ada Wong)의 기조강연과 함께 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창의적 실험과 예술적 시도들을 만나는 축제의 장을 벌였습니다. 창의성은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공동체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회적 존재가 될 때,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2012년 제4회 창의서밋은 '자활의 환경, 자립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근대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함을 선언했습니다. 발명가이자 비전력 공방 공장장인 후지무라 야스유키(Fujimura Yasuyuki) 선생을 초대한 것은 그 분이 바로 생태적 전망에서 다양한 유무형의 발명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의성이 시대적 맥락에서 즉, 개인적 문제이자 곧 사회구조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물으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2013년 제5회 창의서밋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로 정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생태주의적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창의서밋의 단골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교사들의 참여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조강연자로 1990년대부터 '큰 구상, 작은 학교(Big Picture, Small School) 운동'을 벌여온 데니스 릿키(Dennis Likky) 교장과 '학교 안팎의 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문화인류학자 수잔 블룸(Susan Blum) 교수를 초대해서 중고등학생만이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의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명실 공히 창의적으로 서로 엮이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창의서밋 행사의 형식은 주제 강연을 통해 문제의식과 언어를 공유하는 자리와 구체적인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이는 워크숍, 예술적 실험의 장과 축제와 장터가 한꺼번에 벌어지는 복합형입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이 판은 청소년과 어린이, 청년, 장년과 노년 할 것 없이 세대와 남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협력하는 창의적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파국적 위험사회를 직시하면서 새롭게 일과 직업과 활동의 영역을 열어가고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며 문화와 경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사회 경제적 실천의 장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2 : 다시 배움과 희망에 대하여

올 4월 한국에서는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 2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한국에 사는 주민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민들에게 '문명사적 충격'을 안겨준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인솔교사 14명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고 그날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학생 75명, 인솔교사 3명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침몰 원인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박회사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배를 변형시키고 과적을 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안전 규제를 완화했고 선박회사는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을 때 선장은 승객을 버리고 달아났고 선내 방송에서는 "단원고 학생들은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계속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송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선실에 머물러 있다가 고스란히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안 한 겁니다. 아무 것도 안 했습니다. 살린 겁니다, 죽인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교육을 해요." 라고 항의도 하였습니다.¹⁾ 사고 당시 딸과 통화하다가 상황의 긴급함을 알아차리고 당장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말해서 생존한 딸의 아버지는 "무슨 놈의 구조입니까? (살아남은 아이들은 스스로) 다 탈출했습니다."라면서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²⁾ 이런 상황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시민들도 이것은 생매장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사고 나흘째에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대국민 담화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본연의 임무 다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할 것이며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쳐온 유가족들은 7월 15일 국민 350여 만 명의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원 80%도 서명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아직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단원고 2학년 생존 학생들은 도보행진에 나섰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희생자 학부모들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향해 걷는 학생들 대표는 "저희는 법을 모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에 이렇게 나섰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³⁾ 이날 정부에서는 생존학생들에게 특례 입학 혜택을 주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그것이 유족들의 요구인 줄 알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서 유족들이 농성

1) [세월호 침몰] "이런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어"...정부 대응에 격분한 가족들(민중의 소리, 2014.4.18)

<http://www.youtube.com/watch?v=QLrtxD8JUVs>

2) [세월호] 생존자 아버지, "무슨 놈의 구조입니까? 다 탈출했습니다"(주권방송, 2014.5.11)

<http://www.youtube.com/watch?v=tpZBzv-kwck>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실종자 여객선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YBC News, 2014.4.17)

<http://www.youtube.com/watch?v=BrCvPiTC44Y>

3) 최원석 기자, "서럽고 미안해"... 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YTN, 2014.7.16)

변해정 박성환 기자, 세월호 참사 "진실 밝혀달라"...단원고 생존 학생들 도보 행진(뉴시스, 2014.7.16)

박정호 기자, [단원고 학생 국회 행진 7신]새벽 2시에 도착한 아이들(오마이뉴스 TV, 2014.7.15)

<http://www.youtube.com/watch?v=8AIFoFv4Le8>

중인 곳에 가서 규탄대회를 한 일군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⁴⁾ 유족들은 편파 왜곡 방송을 일삼는 공영 방송사를 비난하면서 취재를 거부했습니다.⁵⁾

이 사건을 두고 잊지 말자는 쪽과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쪽⁶⁾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극단적 대립으로 파국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에 놀라고 당황할 때, 책임조직이나 문제를 풀어야 할 권력집단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하려 들기보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일을 강력히 전개하는 '재난 자본주의'의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호에 대해 장황하게 써 내린 이유는 이것이 바로 사고를 당한 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사실상 지구상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래서 생명과 윤리에 관한 근원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실을 꿰뚫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수시로 터질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생명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창의성을 화두로 다음 세대의 삶과 교육을 이야기해온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직화된 무책임의 체제에 던져진,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불안한 위험 사회(risk society)를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배워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에 빠진 우리는 올해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를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위험 사회' 이론을 제시한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는 위험(risk)이란 단순한 위기(crisis)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기와 재해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을 말하며 위험사회란 순간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위험사회의 구성원들은 위기가 일상화된 삶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는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류학적 충격을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그간 하지 않은 창의적 질문을 하게 된다면서 이를 '해방적 파국'이라는 단어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9.11 테러나 기후 변화,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와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통해 우리는 '위험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시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재난은 기존의 제도가 만든 사고이자 기존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고 특히 자폐적인 국가주의로는 풀 수 없는 파국입니다. 울리히 벡은 현 시점이야말로 성찰을 통한 전환의 시대이며 세계시민주의가 등장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 파국적 재앙의 경험이나 충격은 그간 베일에 가려있던 국가나 학교 등 기존 제도의 실체를 보게 하면서 새로운 학습의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일국 안에서가 아니라 '범세계적(cosmopolitan)이고 지역적인 전망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창의서밋에서는 이런 위험사회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사회적 카타르시스의 장을 열어가 보고자 합니다.

4) 단원고 생존학생 도보행진 "특례입학 논하기 전에 진상규명부터(AJU TV, 2014.7.16)

http://www.youtube.com/watch?v=38eOIFv_N7M

5) 박장준 기자, 단원고 학생이 MBC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왜 촬영합니까?"(미디어스, 2014.7.1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14>

6) 이와 관련하여 한 여당 국회의원은 세월호 사건을 그냥 교통사고라고 말합니다.

그간 인류는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탄력적 회복력으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타인과 손을 잡는 것이 점점 두려운 일이 되고 있고, 홀로 있으라는 시장의 유혹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공통의 감각을 키우며 대대적인 '탈바꿈'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본 생태평화운동가 마사키 다카시 선생은 이 시기를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는 시간에 비유하였습니다. 만나나무 이파리를 다 뜯어 먹어버리면 나무가 죽게 될 것을 걱정하는 애벌레에게 지혜로운 나무는 말합니다.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나뭇잎을 먹지 않는단다. 대신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지금 우리는 애벌레가 고치를 쳐서 나비로 변신하는 대전환기를 살아내고 있기에 어느 때보다 창의적이고 협동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창의서밋은 좀 무겁게 시작합니다. 기조강연은 경제 기적 이후 동북아시아의 삶을 연구해온 호주 국립대학교 테사 모리스-스츠키(Tessa Morris-Suzuki) 교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일본 재해 지역부흥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동경대 노동경제학자 겐다 유지(Genda Yuji) 교수와 덴마크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은 국제시민대학(International people's college)의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jerg) 교장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테사 교수는 국가와 시장이 나/우리의 필요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어떤 정치학이 필요할지를 질문하면서 스스로 삶의 필요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생존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파국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낯선 존재들, 예를 들어 도시적 지식인과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농민)들이 만나면서 상호 필요한 것을 주고받게 되고 점진적으로 상호 연대와 협동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해감과 동시에 전지구적 문제에도 개입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동과 정치의 장이 열리는 아시아의 변화에 대해 말해주실 것입니다.

오래된 경제침체기를 거친 후 후쿠시마 재앙을 만나고 최근에는 다시 국가주의적 야망을 키워가는 일본의 파국적 상황에 난망해하는 겐다 교수는 '위험사회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주실 겁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나 일을 찾기도 어렵고 가족 외에는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고립무업(약칭 SNEP: Solitary Non-employment Person)' 시대를 연구해온 겐다 교수는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안심'을 안겨줄 '강한 연대'(strong ties)를 맺고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느슨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느슨한 연대'(weak ties) 관계망을 통해 서로 자극을 주고 시대를 넘어설 힌트를 주고받으며 성장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으면 오히려 보람 있는 작은 일을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노닥거리는 즐거움과 함께 오지랖을 넓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국제시민대학의 쇠렌 교장은 기존 교육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그룬트비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자로서 '배움에 적대적인 시대에 배움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100년을 이어온 이 전통적인 혁신학교는 함께 하는 기술(the arts of living together), 간문화적 경험(intercultural experiences), 그리고 음악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삶에 대해 점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에서 덴마크 청년들도 그리 자유롭지 못하나 봅니다. 정부의 간섭도, 외부의 부담스러운 기대도 없는 이 학교의 상황은 그간 교사와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이상적 학습자치 상황을 만들어 냈지만, 배움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시대를 만나면서 어떻게 배움을 목적 자체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다시 고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간적인 속도로 근대화를 하였고 가장 훌륭한 학교 제도를 가진 덴마크지만 그곳 학생들도 도처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느라 몸을 숨기거나 편리하게 기존 제도에 몸을 맡기려는 경향이 생겼나 봅니다. 냉혹한 글로벌 자본주의의 엇나간 시간대를 살아가면서 그곳의 청년들도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렵고 미래가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차분하게 배울 여유를 가지기가 더욱 힘들어진 것일 테지요. 그래서 세계 다른 곳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과 자긍심과 즐거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배움터와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창의서밋에서는 대안교육만이 아니라 제도교육에 틈을 내는 방법을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제도로부터 잠시 벗어나 전환을 모색하는 '전환학년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앞가림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터져도 탄력적 회복력을 갖고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교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간 교류가 많지 않았던 이들과의 '느슨한 연대'적 만남이 겐다 교수의 제안대로 의외로 많은 통찰력과 힌트와 희망을 안겨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 전환기를 살아 낼 고민을 나누고 함께 몸을 바꾸어 내면서 학교를 바꾸어 낼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과 적대의 몸을 바꾸어 내는 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홀로 된 나이지만 이제 나/우리는 '만남이 가능한 자아'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찾아 실천의 여행을 떠납니다. 세대를 넘어서서 다양한 생각과 감성을 가진 이들이 둘러앉아 마주 보고 뭔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십여 년, 같은 원리로 반복되는 '프랙탈적' 재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인류학적 충격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직시하고 해결해가기 위해 함께 창의성을 발현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창의서밋의 자리가 새로운 윤리와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학습의 카타르시스를 선물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행히 둘러보면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뜻'을 세우고 각자 선 자리에서 지구를 망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의 의미를 새기는 이들이 이미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서밋은 그런 '나/우리' 모두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개막식과 폐막식, 원탁대담, 포럼과 강연, 워크숍, 마을장터와 공동체상영회, 나눔부엌 등으로 언제나처럼 풍성한 말과 소소한 수다, 소박한 먹거리와 설레는 만남, 흥겨운 잔치와 쉼이 있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현실을 용기 있게 대면하면서 고른 숨을 쉴 줄 아는 여러분들과 어우러질 날을 고대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조한 혜정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주요강연자 소개



겐다 유지(玄田有史) / Yuji Genda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

- ▲ 9월 26일(금) 14:00-15:30 개막식 / 개막강연자
- ▲ 9월 26일(금) 16:00-18:00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 패널
- ▲ 9월 27일(토) 16:00-18:00 서밋 강연 - 격차사회에 눌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 주 강연자

1964년 시마네현 출생. 도쿄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현재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수이자 희망학 프로젝트 리더. 전공은 직업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노동경제학.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어 청(소)년 세대의 향후 일자리 확보 문제가 소리높이 거론되는 가운데 <근무 중의 애매한 불안 >(2001)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중장년층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저서는 산토리 학예상 등을 수상했다. 겐다 교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in Employment or in Training)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니트>에서는 취직에도, 희망에도 희망을 잃은 무직상태 젊은이들의 모습을 상세한 데이터 분석과 공들인 취재로 그려냈으며, 이들이 삶과 직업에서 접하게 되는 불안과 불확실함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진솔한 필체로 그려 공감을 얻었다.

2005년부터 도쿄동경대학에서 희망학 연구를 이끌고 있으며, 이와테현 가마이시, 후쿠이현의 지역재생에 대해 희망학 관점에서 현지조사를 행하면서, 지역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2010년 3.11이후 동일본 재해지역부흥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2012년에는 <고립무업>이라는 책을 통해 직업이나 일도 없고 혼자, 혹은 가족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맺지 않는 20~59세 사이의 미혼 인구를 일컫는 SNEP(Solitary Non-Employed Person, 孤立無業)이란 개념으로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읽고 있다.



테사 모리스-스즈키 / Tessa Morris-Suzuki

호주국립대 태평양아시아학부 교수

- ▲ 9월 26일(금) 14:00-15:30 개막식 / 개막강연자
- ▲ 9월 26일(금) 16:00-18:00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 패널
- ▲ 9월 27일(토) 10:00-12:00 서밋 강연 - 공동체 다시 만들기 ; '새로운 마을' 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 주 강연자

1951년 영국에서 태어나 브리스톨 대학을 거쳐 바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일본경제사. 사상사이다. 1981년 호주로 이민가기 전에 일본에서 살며 공부했고 이때 일본인과 결혼, 지금의 성을 갖게 되었다. 현재 호주국립대학교 태평양아시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리 안의 과거>,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묻는다>, <봉인된 디아스포라> 등 다수의 저서가 국내에서 번역 출간될 정도로 잘 알려진 학자이다. 일본에서도 <자유를 참고 견디다>, <데모크라시의 모험>(공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문화정치>(공편), <이와나미강좌 아시아.태평양전쟁>(전 8권, 공편)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1959년 이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간 10만 명 재일조선인에 얽힌 '귀국사업'의

실체를 파헤친 연구는 지난해 12월 KBS 1TV의 다큐멘터리 KBS 파노라마에서 '복숭-테사 교수의 진실추적 10년'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현재 동북아지역에서의 삶의 정치와 풀뿌리 운동, 즉 삶의 정치(Survival Politics)에 관심을 갖고서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Informal Life Politics' (<http://survivalpolitics.wordpress.com/>)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몽골, 북한에 이르기까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이 연구, 축적되고 있다.



쇠렌 라운비에르 / Søren Launbjerg

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교장

- ▲ 9월 26일(금) 14:00-15:30 개막식 / 개막강연자
- ▲ 9월 26일(금) 10:00-12:30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 발제자
- ▲ 9월 27일(토) 13:00-16:00 이 시대의 교육포럼 1 - 전환학년제(gap year), 쉽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 발제자

덴마크 교육자인 그룬트비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포크하이스쿨(folk high school)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세계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의 교장이자 예술가. 2003년 음악과 드라마를 가르치기 위해 처음 IPC에 왔으며 2009년 교장이 되어 지금까지 재직하고 있다. 그는 전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학생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포크하이스쿨, 그리고 IPC의 정신을 사랑하는 천상 교육자로서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이 경이롭다고 말한다.

IPC는 포크하이스쿨의 국제적 교육의 장으로 16세 이상 세계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학기는 봄학기(24주), 가을학기(18주), 그리고 계절학기(일주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학생들이 직접 다섯 개의 카테고리 영역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게 된다.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나아가 활동적인 시민으로, 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덴마크 전역의 주요 극장에서 공연하는 프로 싱어이자 배우이기도 한 쇠렌은 덴마크 어린이들에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지니 목소리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현재 부인과 막내아들과 함께 교내 캠퍼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탈 / Claus Staal

덴마크 세계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부교장

- ▲ 9월 26일(금) 10:00-12:30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 발제자

교장인 쇠렌 라운비에르와 함께 방한하는 클라우스 슈탈은 한국에서 태어나 1980년 덴마크로 입양되었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덴마크인으로 살고 있다. 철학과 신학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IPC에서도 이들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 IPC를 비롯한 덴마크 포크하이스쿨을 사랑한다는 그는 콜롬비아인 부인과 함께 교내에서 살고 있다.



앤드류 프리슈먼 / Andrew Frishman
미국 빅픽처 러닝 프로그램 개발 담당이사

▲ 9월 28일(일) 10:00-13:00 이 시대 교육포럼 4 -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 발제자

미국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생물학 및 화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공교육 학교에서 교사 경력을 쌓았으며 2002년부터 공교육 혁신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는 공립형 대안학교인 메트스쿨과 연계 연구기관인 빅 픽처 러닝과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그 네트워크 안에서 교사 및 연구자,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석사학위를 받은 브라운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캐피탈 퍼블릭 라디오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의 교육 리더십 프로그램 연구로 곧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서밋에서 앤드류 프리슈먼은 <leaving to learn>에서 말하는 탐방, 지역사회 참여활동, 여행, 방과후 수업 등 다양한 학교 밖 학습방법들과 이러한 학습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지원활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학교밖 학습을 다룬 메트스쿨 창립자 엘리엇 와셔(Elliot Washor)와 찰스 모코우스키(Charles Mojkowski)의 공동저서 <leaving to learn>은 그간 메트스쿨 및 빅픽처러닝과 꾸준한 연계를 맺어온 하자센터의 주선으로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도서출판 민들레가 협업해 한국판을 출간하기로 해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한혜정
하자센터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9월 26일(금) 16:00-18:00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
 패널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UCLA)에서 문화인류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에 귀국하여 연세대학교에서 강의, 연구, 사회운동, 집필 활동을 해왔다. 역사와 생활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문화분석적인 시대 탐구 작업, 특히 창의적 공유지대로서의 실천적 장을 확장하는데 주력해왔다. 초반에는 여성, 청소년, 청년들이 근대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을 연구해왔으며, 최근에는 위기에 처한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 이른바 위험사회의 노동과 삶, 청년 실업과 '돌봄과 호혜, 사회경제'로 영역을 넓여가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대안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하나의 문화] 동인 활동을 해왔으며, 1999년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창의적 공공지대인 하자센터(서울시청소년 직업 체험센터)를 설립하였다. 갈수록 난감해지는 시대의 해법으로 최근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해왔으며 2012년 이래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마을 공동체 위원회 위원장으로 돕고 있다.